



이영수 쿠키뉴스 본부장

사랑도 지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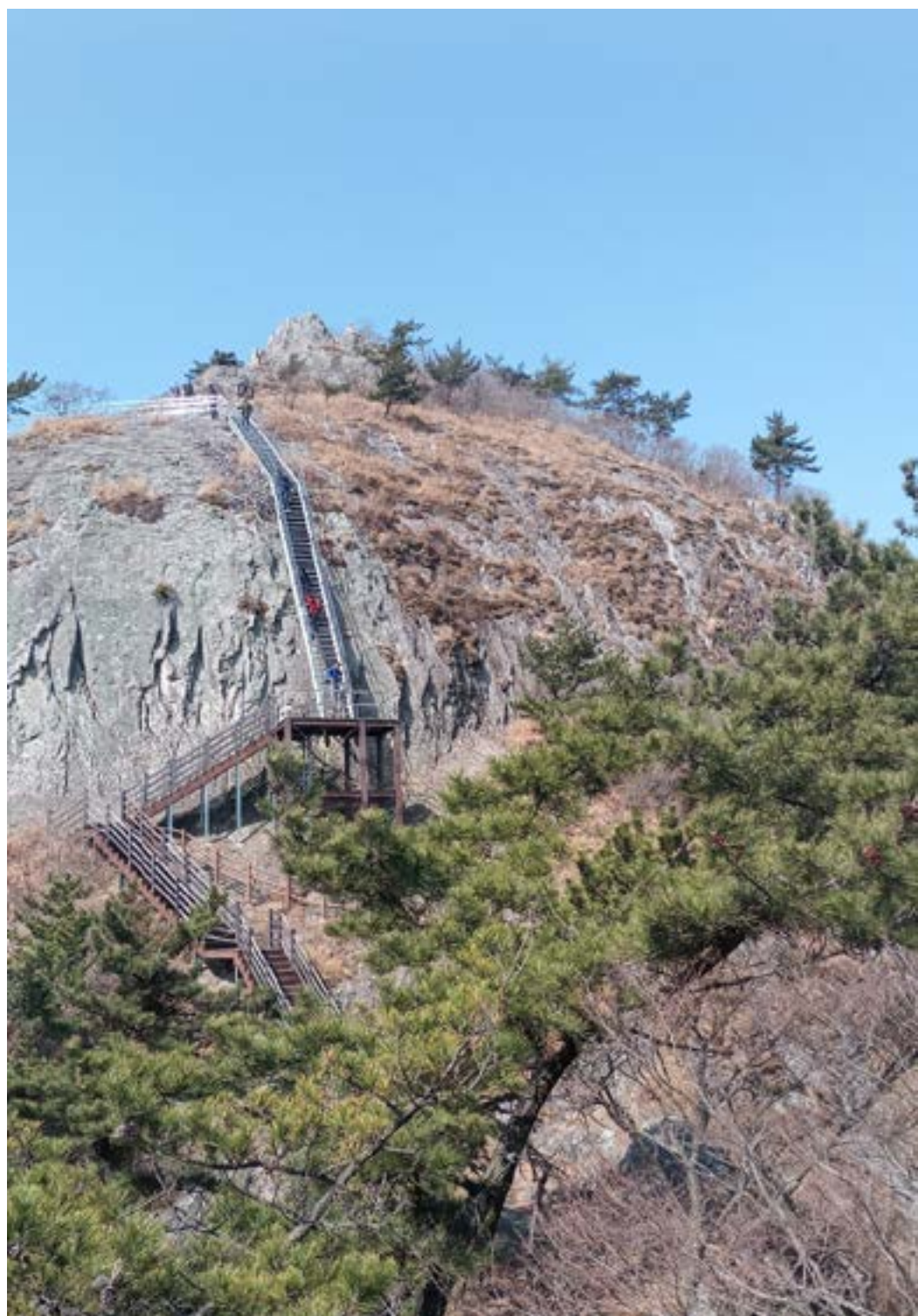


사랑도(蛇梁島)는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에 속해 있는 섬으로 사랑면의 중심지이다. 사랑면사무소가 위치해 있으며, 섬 서쪽에는 지리산과 불모산이 솟아 있다. 사랑초등학교, 사랑중학교등이 위치해 있다.

서쪽에는 지리산(지리망산이라고도 한다. 맑은 날 꼭대기에 올라서면 산청 지리산이 보인다고 한다.)이 솟아 있고 북쪽에는 불모산이 솟아 있으며 남쪽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다. 상도와 하도의 2개섬이 사랑대교로 연결되어있다. 사랑대교는 2015년 10월 30일 개통하였다. 사랑도는 윗섬, 아랫섬, 수우도 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도는 크게 서쪽의 상도와 남동쪽의 하도 외 9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도에 상도에 위치한 지리산(蛇梁島智異山)은 대한민국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도에 있는 높이 398m의 산이다. 지이망산(智異望山)이라고도 한다.

사랑면 하도에 위치한 해발 349m의 산으로서 남쪽으로 뻗은 산줄기를 따라 7개의 봉우리가 솟아 있어, 칠현봉(七絃峰)이라 하는데 이 가운데 망산(공수산, 해발 310m)에는 옛 사랑진의 봉수대 유적이 있다. 상도의 지리산과 불모산, 옥녀봉 등에 가려 덜 알려졌지만 바위능선이 마치 성을 쌓아 놓은 듯한 모습이 볼만한 산이다. 칠현봉에는 등산로와 안내판이 잘 정비되어 있고 일곱 봉우리를 오르내리는 능선길이 재미있을 뿐 아니라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 또한 좋아 근래 가장 각광받는 등산 코스이다.





필자가 고성 용암포에서 오전 7시 배를 타고 15분 정도 이동해 도착한 곳은 사랑도 내지항이다.

내지항에서 오른쪽 도로를 따라 3~4km 정도 오르면 수우도 전망대에 도착한다. 지리산 일주 코스는 이 곳 수우도 전망대에서 부터 시작된다. 입구부터 시작되는 오르막길을 좀 걷다보면 사방이 탁 트인 암릉 구간이 시작된다. 암릉 구간을 따라 지리산 정상을 거쳐 불모산, 가마봉, 2개의 출렁다리를 지나면 옥녀봉에 도착하

게 된다. 그리고 바로 하산길에 접어들게 되고 진촌항에 이르면 사랑도 일주가 마무리된다.

사랑도 일주 코스는 약 7.5km로 산행 간 휴식을 취하면서 걸으면 대략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소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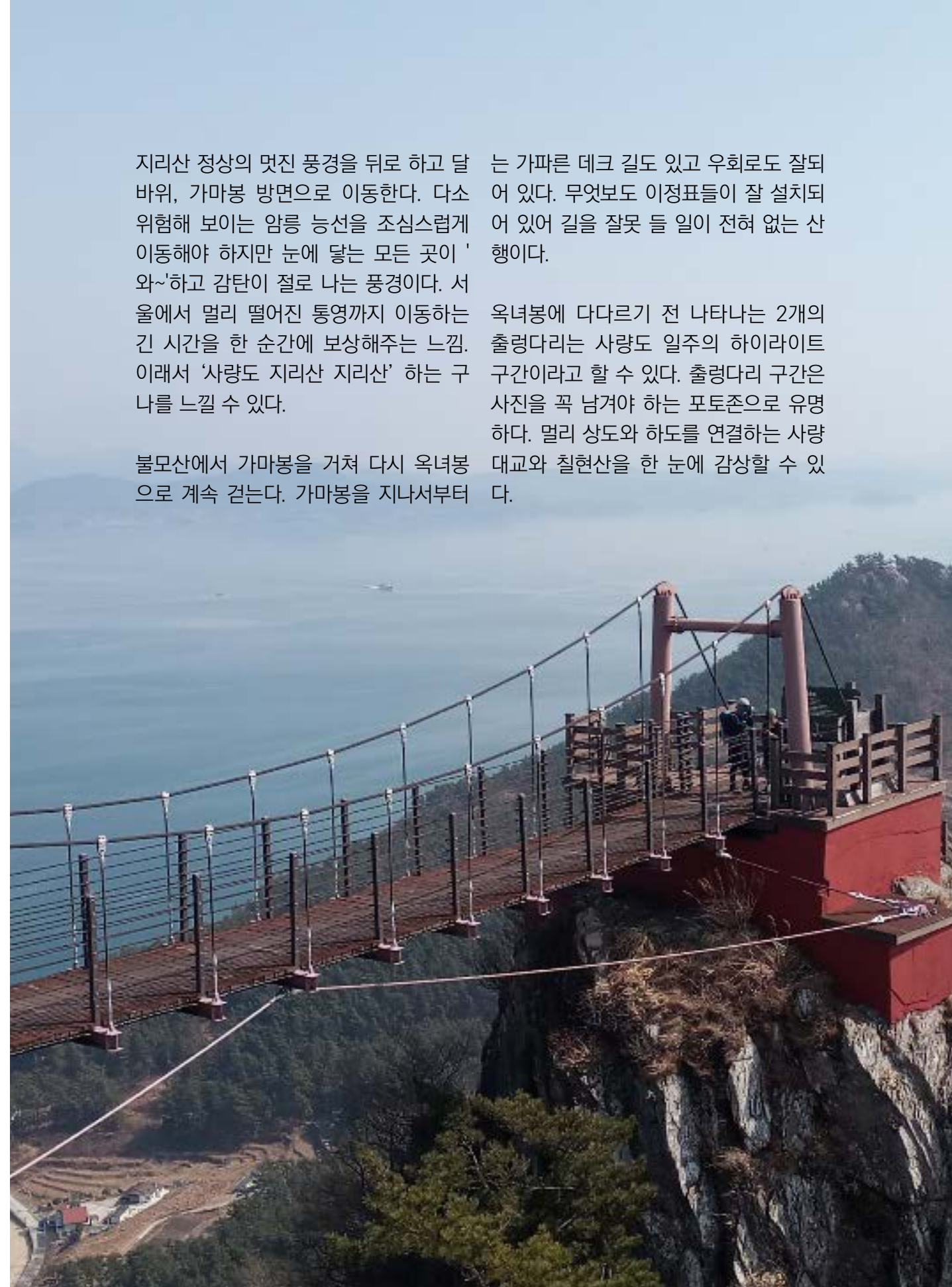
398m의 지리산보다 1m 더 높은 불모산(399m)이 있지만 지리산이 그 경치와 풍광 때문에 사랑도의 대표적인 산으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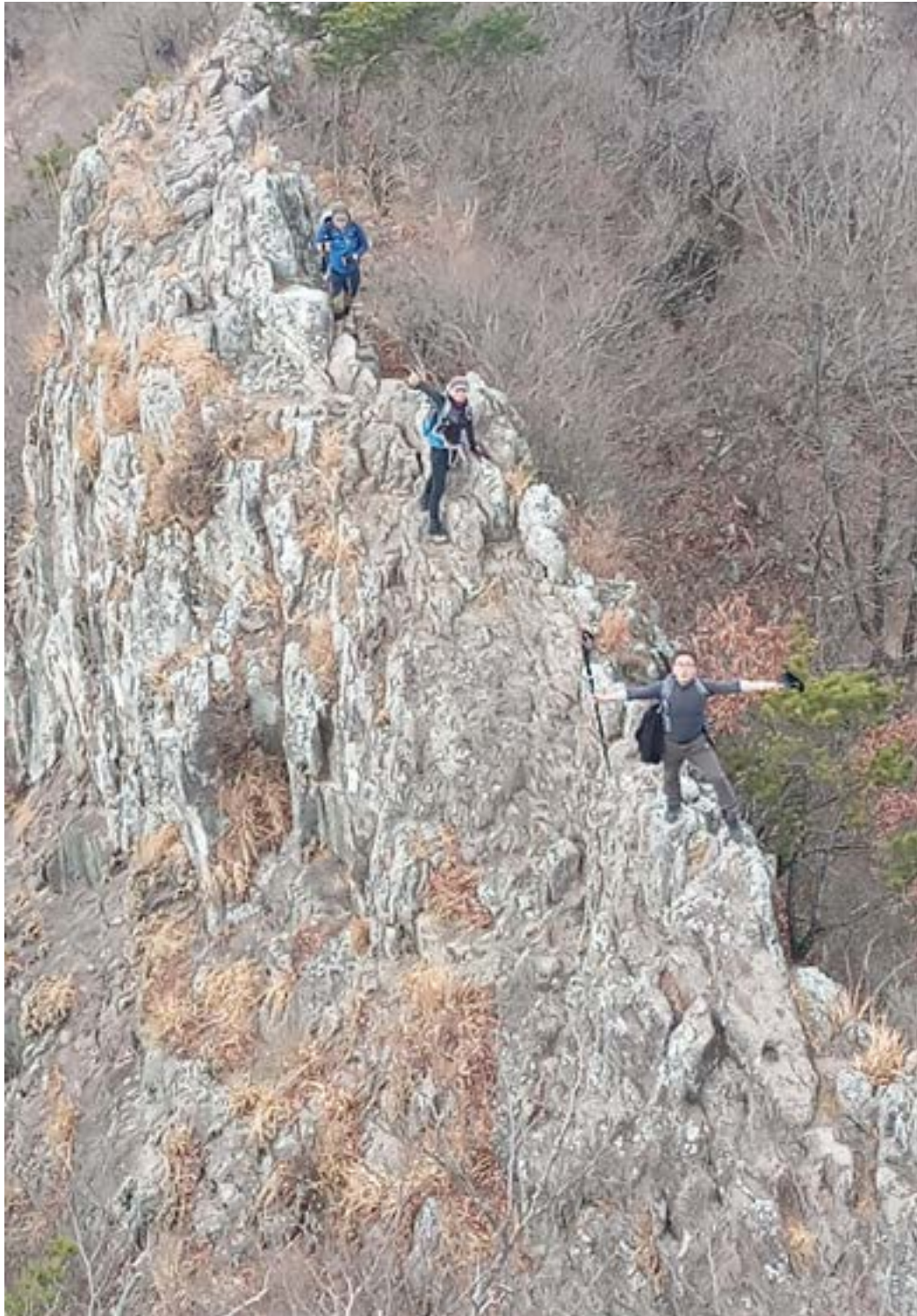
지리산 정상의 멋진 풍경을 뒤로 하고 달 바위, 가마봉 방향으로 이동한다. 다소 위험해 보이는 암릉 능선을 조심스럽게 이동해야 하지만 눈에 닿는 모든 곳이 '와~'하고 감탄이 절로 나는 풍경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통영까지 이동하는 긴 시간을 한 순간에 보상해주는 느낌. 그래서 '사랑도 지리산 지리산' 하는 구나를 느낄 수 있다.

불모산에서 가마봉을 거쳐 다시 옥녀봉으로 계속 걷는다. 가마봉을 지나서부터

는 가파른 데크 길도 있고 우회로도 잘되어 있다. 무엇보다 이정표들이 잘 설치되어 있어 길을 잘못 들 일이 전혀 없는 산행이다.

옥녀봉에 다다르기 전 나타나는 2개의 출렁다리는 사랑도 일주의 하이라이트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출렁다리 구간은 사진을 꼭 남겨야 하는 포토존으로 유명하다. 멀리 상도와 하도를 연결하는 사랑대교와 칠현산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다.





출렁다리를 지나 옥녀봉을 거쳐 오른쪽 하산길로 내려오다 보면 사랑면 면사무소 등이 있는 진촌항에 다다른다. 이러면 지리산 일주를 마치게 되는 것이다. 면사무소 앞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등산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횡집, 중국집 등 음식점들이 준비해 있다. 참고로 횡집의 메뉴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가격 또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참고로 칠현산에도 도전을 하고 싶은 분들 위해 간단히 안내를 드리면 진촌항에서 사랑대교를 건너면 정면에 공원이 보인다. 이 공원을 시작으로 능선을 올라 칠현봉, 망봉을 거쳐 하산하면 읍덕항에 이르게 된다. 참고로 읍덕항에는 매정이나 식당이 없다. 약 6km 구간으로 산행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이영수 쿠키뉴스 기자